

# 화순군내버스 시간선제 폐지 오늘부터 기존대로 운행한다

## 화순군 “주민 혼란 송구...불편 최소화 노력”

화순군은 현행 지선·간선제를 폐지하고 17일 첫차부터 화순군내 버스 운행 체계를 기존의 '왕복 운행체계'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지선·간선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버스 운전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군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 벽지마을 노선 운행 횟수 축소와 폐지 등에 대응하고 주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선·간선제를 도입했다.

지선·간선제 운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환승 등에 대한 불편을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지선·간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기존의 왕복 운행체계(노선)로 운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도 정착, 노선 축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선제를 도입했는데, 주민들께 혼란과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군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군,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사업 농가 선진지 교육



곡성군이 지난 15일 과수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농가와 이에 관심 있는 농가 10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 관개시스템

선진농가인 곡성군 연화 블루베리 농장과 전라북도 정읍시 쓰리고 블루베리 농장 두 곳을 찾아 스마트 관개 시스템 적용 사례, 정밀 관수 기술 등을 습득했다.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토양 및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작물의 최적 재배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

스템이다. 작물별로 필요한 만큼의 물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때문에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손을 덜 수도 있다.

곡성군은 올해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과수 재배 농가 6개소를 선정하여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뭄,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물의 품질과 농가 소득이 높아질길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 관리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농업용수 절약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 과수 재배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2020 내사랑 고흥 기금’ 사업 확정

고흥군이 지난 15일 귀향청년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0 내사랑 고흥기금’ 30억원 추가 조성하고 정책운영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귀향청년 초기 정착 플랫폼 마련을 위한 내사랑 고흥기금은 2022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억원 확보, '20년도에는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층 유입 극대화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귀향 청년 U-turn 정착금 지원 ▲귀향 청년 빈집 수리비 지원 ▲귀향 청년 주택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귀향청년 초기정착에 기여하였다.

내년에는 신규로 ▲청년부부 U-turn 정착 플러스 장려금 지원 (15백만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생활 인프라 지원(고흥탐방) ▲청년유턴 고흥사랑 사관학교 운영 등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출신 청년유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 사랑 고흥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핵심생산인구인 청년층 유출 최소화하고 유입 극대화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 보성 한국차박물관, 워크숍 장소로 떠올라

광주시 남구청 직원들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보성을 찾아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700여명이 다녀감에 이어 가을엔 남구청 직원 500여 명이 보성을 찾았다. 힐링과 체험을 동시에 잡는 직원 워크숍 장소로 보성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약 2주간의 워크숍 기간 동안 4개조(각130명)가 순차적으로 보성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갖고, 한국차박물관과 제암산휴양림을 찾았다.

한국차박물관에서는 남구청 직원들을 위해 보성차를 이용한 바디오일과 미스트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박물관 견학을 통해 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했다. 직

원들은 실내정원과 차밭을 산책하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해소했다.

직원 정모 씨는 “사무실을 떠나 보성에서 좋은 공기, 초록차밭, 건강한 화장품만들기 체험까지 나에게 투자하는 값진 워크숍”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박 모 씨는 “녹차를 마시는 음료로만 알고 있었는데 녹차오일을 이용해 천연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관련 역사와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고,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최근 한국차박물관이 직원 워크숍 장소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면서,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에 더욱 힘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영광군, 2020년 읍·면 지역 활성화 특색사업 선정

영광군은 지난 10일 김준성 군수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발표평가를 끝으로 7월부터 10월 까지 3개월 간 진행될 공모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평가에 참석한 읍·면장들은 그간 준비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열띤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읍·면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된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읍·면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읍·면 행정과 주민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11개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응모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흥농읍 ‘칠암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 대마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 조성’, 묘량면 ‘신흥마을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마케팅’, 군서면 ‘100리 꽃길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 법성면 ‘형형색색! 컬러풀 법성포’ 등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순천 시티투어 명물 ‘트롤리버스’ 여행 상품으로 개발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시티투어 도심코스인 트롤리버스의 운행 방식을 도심 순환형에서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형태로 바꾸고 문화거리와 옷장 대신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와온해변을 경유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시 시티투어는 자연생태코스과 도심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생태코스’의 경우 리무진 버스 1대가 1회 예약제로 운영되며 순천 외곽에 위치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과 도심에 위치한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등을 요일별로 코스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트롤리버스 2대로 운영중인 ‘도심코스’의 경우는 도심관광지를 포함한 9개 승강장을 경유하면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어왔다.

순천시에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트롤리버스를 연말까지 한시적으

로 운행방식과 코스를 바꿔 운영한 후 2020년 시티투어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트롤리버스는 순천여행의 감흥을 더해 줄 해설사와 함께 코레일 도착 시간에 맞춰 1차 10:10, 2차 11:30 순천역을 출발하여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 와온해변 순으로 도심 관광지를 경유하고 18:00 순천역으로 되돌아오는 프리미엄 여행상품으로 운영된다.

순천 시티투어 이용은 사전예약 우선이며 잔여 좌석에 대해 순천역 현장 탑승도 가능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